



[미국미래2030] 미국 패권의 미래: 트럼프 이후 미국은 어디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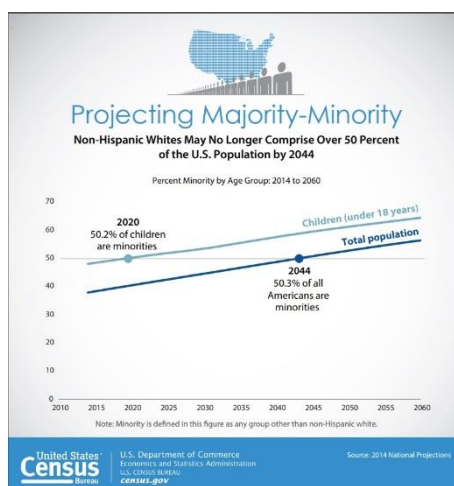
미국의 인구 및 문화적 변동과 미국의 미래

이수영, 한양사이버대학교

I. 들어가며

미국 인구조사국(United States Census Bureau)은 2015년 3월 『2014년에서 2060년까지의 미국의 인구 규모 및 구성 전망에 대한 보고서』(*Projection of the Size and Composition of the U.S. Population: 2014-2060*)를 발표하면서 [그림1]과 같은 인포그래픽을 서두에 제시하였다. 이는 본 보고서의 내용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사실 중 하나로 지금과 같은 인구 변동 추세라면 ‘백인(White)’이 2044년을 기점으로 소수인종(minority)의 위치가 될 수 있으며, 이를 18세 이하 인구만으로 한정하면 그 시기가 24년이나 당겨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미국이 건국된 이래로 다수를 차지하는 단일 인종으로, 지금까지 미국의 주류로서의 위치를 지켜왔던 ‘백인’이 가까운 미래에 ‘소수인종’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인구학적 전망은 여러 가지 의미로 재생산, 확산되며 미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2016년 트럼프의 등장과 함께 부각되기 시작한 ‘백인 민족주의(white nationalism)’ 현상도 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 "Projecting Majority-Minority: Non-Hispanic Whites May No Longer Comprise Over 50 Percent of the US Population by 2044"



미국 역사 상 보통 정치경제적 상황이 급진적으로 변할 때 백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방어벽으로 백인우월주의가 강화되는 현상을 보여왔다면(민정훈 1), 약 30여년 후에는 백인이 수적으로 ‘소수인종’이 될 수도 있다는 인구 전망은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기득권적 지위에 대

한 강력한 위협으로 느껴졌다. 정치학자 다이애나 뮈츠(Diana Mutz)가 주장하듯이 트럼프가 2016년 선거에서 백인 남성 노동자들 계층의 지지를 받은 원인이 단지 20세기 후반 후기자본주의 사회의 산업구조의 변화와 이민자의 증가로 인하여 자신들의 안정된 일자리가 위협받는 것 등과 같은 경제적 요인에만 있는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즉, 트럼프를 중심으로 하는 백인 인종주의의 부상에는 지금까지 ‘백인’ 그룹이 미국의 주류로서 누려왔던 기득권적 위치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과 같은 ‘비경제적인’ 요인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Mutz, 2018) 그리고 이러한 위기의식은 미국의 미래의 인구구조의 변화가 미국의 국가경쟁력이나 ‘백인’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와 상관없이 트럼프의 강력한 이민제한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문맥에서 유통되고 있는 미국의 ‘백인’은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 역사적으로 미국 내 ‘백인성(whiteness)’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특히 ‘진정한 미국인(authentic American)’의 핵심적 조건인 ‘백인성’의 범주는 문화적, 법적,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그 과정 속에서 그 의미가 계속해서 재정립되어 왔다. 즉, 백인성의 범주는 ‘미국인의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진정한 미국인’으로 인정하거나, 동시에 ‘비미국적(un-American)’인 것에 대한 차별적 배제의 근거로도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역사적으로 ‘백인성’의 범주가 어떻게 재정립되어 왔는지를 그의 확장성과 배타성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최근 미국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반이민 정서와 백인 민족주의가 앞으로 미국의 국가 정체성 형성에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II. 확장적, 배타적 ‘백인성’의 형성

“White” refers to a person having origins in any of the original peoples of Europe, the Middle East, or North Africa. It includes people who indicated their race(s) as “White” or reported entries such as Irish, German, Italian, Lebanese, Arab, Moroccan, or Caucasian. (Humes, Jones & Ramirez, 2011: 3)

2010년 인구 조사 설문지에서는 ‘백인(White)’을 위와 같이 정의되고 있다. 우선, 현재 인종 표시는 본인이 직접 선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을 백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포함된다(people who indicated their race(s) as “White”). 다음으로는 출신 지역을 기준으로 아이리쉬, 독일인, 이탈리아인과 같이 민족구분과 상관없이 유럽출신 미국인(any of the original peoples of Europe)과, 레바논, 아랍 등의 중동지역 출신(the Middle East), 그리고 모로코가 포함된 북 아프리카(North Africa) 출신 미국인이 백인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인류의 인종 구분 중 하나인 ‘코케이시안(Caucasian)’이 ‘백인’에 포함될 수 있는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다. 현 시점에서 앞으로의 인구 조사에서는 분리된 항목으로 넣을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중동/북아프리카(MENA, Middle East and North Africa)출신을 제외하면¹ ‘백

¹ 미국의 아랍계 미국인들은 아랍계 미국인 협회(The Arab American Institute, AAI)를 중심으로 인구 센서스에 MENA의 독립된 항목을 넣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이에 2020년 센서스를 위한 2015년 테스트 설문지(National Content Test, NCT)에 MENA 항목이 포함되기도 하였으나, 결국 미국 관리예산실(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다만 아시아계 미국인들이나 미국 원주민들처럼 주백인' 인항목에도 구체적인 민족(ethnicity)을 적어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넣기로 하였다. 현재 센서스에서 발표하는 아랍계 미국인의 수는 부모 출신 민족(ancestry)를 답하는 항목을 통해서 파악된 숫자로, 2010년 센서스 기준 190만명 정도였으나, AAI이 자체적으로 집계한 370만과는 차이를 많이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정부 내에서는 MENA에 대한 정보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인에 대한 인구 정보가 오히려 억류(internment)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었던 것과 같이 테러와 연관한 통제와 차별의 대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기도 한

인' 인종의 기준으로 두 가지 요소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지역적으로 '유럽출신'이라는 것과 인류 인종 분류 중 흰 피부색을 가진 '백인'을 일컫는 '코케이시안(Caucasian)'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현재 미국에서 '백인'으로 분류되는 이 두 가지 기준이 미국 내에서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는 '백인성'의 범주에 대한 확장성과 배타성의 과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즉, 19세기 전까지만 해도 진정한 미국인은 '앵글로-백인'만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다양한 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이민의 증가와 20세기를 거치면서 백인의 의미가 인류학적 인종 구분 중 하나인 '코케이시안'으로 규정되면서 이에 해당되는 모든 민족의 유럽인들이 백인화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문화로의 동화여부에 상관없이 여전히 인종적으로 '코케이시안'만을 '백인'으로 인정하되 이 또한 인류학적 근거보다는 미국인이 되기에 '사회통념'상 적합한 구성원만을 인종적 '백인'으로 한정하는 배타적 태도 또한 보여주고 있다.

1. 백인성의 확장 : '앵글로-백인'에서 '코케이시안'

미국은 독립 후 첫 번째로 실시하는 인구 조사(1790년)에서 미국 전체 인구 약 400만명 중 70만명 가량의 노예를 제외한 백인 중 80퍼센트가 영어를 사용하는 대영제국인(British)이었고 그 중에서도 앵글로-색슨(Anglo-Saxon)계로 알려진 잉글랜드인(English)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또한 종교적으로도 건국 당시 전체 인구의 98퍼센트가 개신교도(Protestant)였는데, 이러한 점을 통해 건국 당시의 흑인 노예와 원주민을 제외한 미국인 들은 인종/민족, 언어, 종교적 측면에서 상당히 동질적인 그룹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앵글로계 영국 백인들의 수적인 우세는, 사무엘 헌팅턴(Samuel Huntington)과 같은 백인 민족주의자들이 17-18세기에 정착한 영국인 개신교도들의 언어, 인종, 종교, 문화가 곧 미국의 정체성을 형성하였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Huntington, 2004:31).

영어 사용하는 앵글로계 백인 개신도인이 미국 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던 시기에는 현재 '백인'으로 명백하게 정의되는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의 지역에서 온 비앵글로 유럽인들조차도 주류에 속하지 못하였다. 우선, 현재 유럽계 미국인 인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독일계'² 미국인조차도 18세기에만 해도 "외국인(Alien)"으로 취급받았고, 충분히 백인스럽지 않은 "검은색 피부(swarthy)"유럽인으로 묘사되기도 하였다.³ 미국 건국의 대표 인물 중 하나인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은 그의 1751년 에세이에서 그의 반독일적 태도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다.⁴

다.

² 2016년 조사를 기준으로 자신의 조상(ancestry)을 독일이라고 선택한 독일계 미국인의 비율이 13.9%로 유럽계 미국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아일랜드계(10.0%), 이탈리아인(5.2%), 폴란드계(3%)등이 그 뒤를 이었다. 영국(English)계는 7.4%로 조사되었으나, 특정한 민족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양미국인(American)'이라고 답한 7.2%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1970년대까지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이민자 수도 독일로부터의 누적 이민자 수가 전체의 14.3%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³ And since Detachments of English from Britain, sent to America, will have their Places at Home so soon supply'd and increase so largely here; why should the Palatine Boors be suffered to swarm into our Settlements and, by herding together, establish their Language and Manners, to the Exclusion of ours? Why should Pennsylvania, founded by the English, become a **Colony of Aliens**, who will shortly be so numerous as to **Germanize us instead of our Anglifying them**, and will **never adopt our Language or Customs any more than they can acquire our Complex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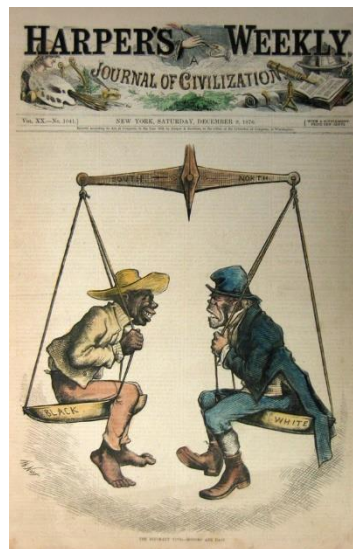
Which leads me to add one remark, that the Number of purely white People in the World is proportionably very small. All Africa is black or tawny. Asia chiefly tawny. America (exclusive of the new Comers) wholly so. And in Europe, the Spaniards, Italians, French, Russians and Swedes, are generally of what we call a swarthy Complexion; as are the Germans also, the Saxons only excepted, who with the English, make the principal Body of White People on the Face of the Earth. I could wish their Numbers were increased. And while we are, as I may call it, Scouring our Planet, by clearing America of Woods, and so making this Side of our Globe reflect a brighter Light to the Eyes of Inhabitants in Mars or Venus, why should we in the Sight of Superior Beings, darken its People? why increase the Sons of Africa, by Planting them in America, where we have so fair an Opportunity, by excluding all Blacks and Tawneys, of increasing the lovely White and Red? But perhaps I am partial to the Complexion of my Country, for such Kind of Partiality is natural to Mankind. (Franklin, 1751: 223)

⁴ Franklin, Benjamin. (1751). "Observations Concerning the Increase of Mankind, Peopling of Countries, etc" 216-23.

그는 에세이에서 유럽인들 중에서도 영국인들의 “피부색(Complexion)”만이 “순수한 백인(purely white people)”이라고 규정하고 아프리카, 아시아인들은 “황갈색(tawny),” 독일인을 비롯한 스페인, 러시아, 이탈리아, 스웨덴, 러시아 출신의 유럽인들은 영국인들과는 구별된 “거무스름한 피부색(swarthy complexion)”을 가졌다고 묘사하였다. (각주 3번 참고) 이러한 반감은 독일과 같은 비앵글로 유럽인들이 가지는 언어적, 종교적 이질감에서 기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백인성’ 여부로 설명하고 있다.

19세기 중·후반에 유럽계 백인 노동자 계급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아이랜드계 이민자들도 현재는 ‘유럽계 미국인’에 포함된 주류 백인 그룹에 속하지만, 19세기 중반 미국으로 이주한 유럽계 이민자들 중 가장 배타적 대우를 받았던 그룹이다. 미국 이민사에서 1820년에서 1850년 사이에 미국으로 대규모로 이주한 서북부 유럽 출신 이민자들을 소위 ‘구이민자(old immigrants)’라 부르는데, 이 중 1/2이 넘는 수가 아일랜드 출신이었다(민경희 34).⁵ 이들은 대부분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농촌 지역 출신으로 미국에서는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비숙련 노동자 계층을 이루었으며, 19세기 중반 미국의 대륙횡단 철도건설이 시작되자 서부로 이동하여 철도 건설에도 참여하였다. 이들은 앵글로-백인과 같이 영어를 쓰는 대영제국인(British)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카톨릭이라는 종교적 이질감으로 인해 주류 백인 그룹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반캐톨릭 성향의 정치 만화가 토마스 네스트(Thomas Nast)가 『하퍼스 매거진』(*Harper's Magazine*)에 발표한 삽화([그림2])는 이러한 차별적 인식을 잘 보여주는데, 삽화 속 저울 위에 ‘White’라고 씌여진 접시에 앉은 아이리쉬 남자는 ‘Black’ 접시의 흑인과 무게가 똑같이 표현되었다. 이는 아이리쉬가 유럽 출신 이민자이였음에도 인종적으로 ‘흑인’이나 마찬가지로라는 의미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시 진정한 미국인으로 받아들여지는 ‘백인’은 앵글로 색슨계 백인에 한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Black = White (Irish)



이탈리아 출신 이민자들의 경우, 이들은 남부 유럽 출신으로 ‘구이민’을 형성했던 독일계나 아이리쉬 이민자들과 다르게 남북전쟁 이후 19세기 후반부터 1924년 이민제한법⁶이 제정되기 전까지 대규

⁵ 1845년 아일랜드의 감자 기근은 아일랜드인의 미국으로의 대규모 이민의 계기가 되었다. 1820에서 1930년 사이에 미국으로 이주한 아일랜드인들의 수는 대략 450만명정도로 추정되고 이는 1891년 인구급감으로 인하여 470만명에 불과했던 아일랜드의 인구와 거의 비슷한 수에 해당된다.

⁶ 존슨-리드 법(Johnson-Reed Act, 1924)로 불리는 이민법으로 1890년 기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각국의 이민 1세

모로 미국으로 유입된 ‘신이민(new immigrants)’ 그룹 중 하나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이탈리아인 중에서도 시실리안(Sicilian)으로 불리는 남부 이탈리아 출신으로 북부 이탈리아인들에 비해서 아프리카에 인접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피부색이 검은 편이었고 주로 농업에 종사하던 하층민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민 후에도 도시 계층에 밀집하여 가난하게 생활하였다. 아이리쉬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카톨릭 교도였던 이탈리아 이민자들은 종교적, 문화적, 계층적 이질감으로 인해 주류 백인으로 인정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검은 피부로 인하여 “검은 다고(black dagos)”⁷(민정희 45)라는 멸시적인 명칭으로 불렸을 뿐 아니라, 남북 전쟁 이후 재건 시대에 남부 지역의 이탈리아인들은 흑인으로 오해를 받아 백인 우월주의자들에 의한 집단폭력(lynching)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어떻게 20세기를 지나면서 앵글로-백인과 동일한 ‘백인성’을 획득하여 기득권을 누리게 되었는가. 이들의 ‘백인화’는 두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는 20세기초 미국에서 유행했던 우생학의 영향을 받아 유럽계 백인들이 ‘코케이시안’이란 인종적 동일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통하여 ‘백인화’된 것이다. 미국의 ‘백인성’ 형성을 연구해온 사학자 매튜 제콥슨(Matthew Jacobson)은 이민 할당제의 제정으로 이민자의 수가 감소한 1920년대부터 1965년 이민개방 이전까지 실제 여러 민족(race)⁸으로 이루어진 유럽계 이민자들이 ‘코케이시언’이라는 ‘인종’으로 통합되는 과정을 밝히고 있다.⁹ 제이콥슨은 당시 진화론자였던 헨리 패어필드 오스본(Henry Fairfield Osborn)이 1924년에 열린 제2회 국제 유전학 대회(The Second International Congress of Eugenics)에서 했던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하며, 그 시기에는 유럽 민족 간의 차이점(“minor divisions”)보다는 아시아인에 해당되는 몽골리안(Mongolian), 흑인인 니그로이드(Negroid), 그리고 유럽인들이 속해 있는 코케이시안(Caucasian) 인종 등의 “major divisions”에 더 관심이 높았으며, 그 과정에서 유럽계 이민자 그룹 간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 동일한 인종이라는 점이 더 중요해졌다고 보았다.

..the motive of the eugenics movement was “to discover the virtues and the values of the minor divisions of the human species, as well as the needs of the major divisions, known as the Caucasian, the Mongolian, and the Negroid.” (Jacobson 91-92)

물론, 유럽인들 중에서도 영국인이 속해 있는 튜톤(Teuton)족의 우월성을 강조했던 우생학적 근거는 켈트(Celts), 슬라브(Slav)나 라틴(Latin)족에 해당되는 남동부 유럽인들에 대한 이민 제한을 1924년 법제화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피부색과 같은 신체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하는 우생학적 관점은 남동부 유럽인들까지 하나의 ‘인종’으로 포함시키는데 기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인종(race)과 구별되는 ‘민족/종족(ethnicity)’ 개념이 부상하는데, 초기 그들을 충분히 백인이자 못하게 했던 문화적 독특성은 ‘민족성(ethnicity)’이라는 개념 하에 흡수되었고, 앵글로 출신 백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었던 미국의 ‘백인’의 범주가 ‘유럽계 미국인 전체’로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1960년 켈트족 아이리쉬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에 그의 캐톨릭적 종교적 배경에 대한 우려는 있었지만, 그

대 총수의 2%를 각국의 이민자 상한선으로 정한 이민할당제법이다. 이민 할당 기준을 1890년으로 정한 것은 당시가 남동부 유럽인들이 들어오기 이전이기 때문에 할당제를 적용하면 이 지역에서의 이민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 법으로 인해 유럽으로부터의 이민뿐 아니라 중국, 일본인 등의 아시아 이민도 사실상 중단되었다.

⁷ ‘dago’는 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갈 등 라틴계열의 남부 유럽 사람들을 비하하여 부르던 모욕적인 명칭이다.

⁸ 여기서 ‘race’는 켈트(아일랜드), 앵글로(잉글랜드), 라틴(이탈리아) 등의 각 유럽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민족을 의미한다. 사실상, 앵글로-백인이 주류 백인의 지위를 독점적으로 누렸던 19세기에는 이는 ‘인종’의 의미를 가진 ‘race’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20세기에 이르러 이들이 모두 ‘코케이시안’이라는 동일한 백인 인종으로 편입되면서 그들이 가지는 독특성은 민족성(ethnicity)라는 용어로 구분되게 되었다.

⁹ Jacobson, Matthew Frye. (1998). *Whiteness of a Different Color: European Immigrants and the Alchemy of Ra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의 ‘아이리쉬’ 출신 배경으로 인하여 비백인 대통령으로는 여겨지지 않았다.

또 하나는 남북전쟁의 결과 시민권을 얻게 된 흑인들과 19세기 중반부터 미국으로 들어와 값싼 노동력을 제공했던 중국인과 같은 비서구인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자신들의 인종적 우월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백인’으로서의 인종적 정체성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노엘 이그나티브(Noel Ignatiev)는 아이리쉬들의 백인화는 이민자들이 남북전쟁 이후 미국에 생겨난 흑백 분리체제(Jim Crow Law) 속에서 흑인을 비롯한 ‘유색인(colored)’과 거리를 두고 자신들의 인종적 백인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¹⁰ 이 중 하나로 당시 아이리쉬 노동자들이 주도했던 노동 조합에서는 ‘자유노동(Free labor)’ ‘공화주의’ 등의 가치들을 그들만의 노동자 계층 의식과 연결시켜 유색인 노동자들과의 차별을 시도하였다.¹¹ 예를 들어, 대륙횡단 철도가 완성되고 동부의 백인 노동자들이 서부로 이동하여 당시 값싼 노동력을 제공했던 중국인 이민자와의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마침 불어닥친 경제 공황(1873년)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자 주로 아이리쉬들로 구성된 전미노동조합(The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FL)은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중국인이 민제한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그 과정에서 중국인으로 대표되는 아시아인들이 근본적으로 ‘백인화’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고 나아가 ‘미국인’으로도 적합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그들의 인종적 우월성을 내세우게 되고, 이 과정에서 ‘아이리쉬’로서의 민족 정체성보다 ‘백인’으로서의 인종 정체성이 강화되는 결과를 가지게 된 것이다.¹²

2. 배타적 백인성: “아시아인은 코케이시언이 아니다”

미국에서 ‘누가 백인인가’의 질문은 ‘누가 미국인인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왔다. 이는 1790년 미국에서 최초로 제정된 귀화법(Naturalization Act of 1790)에 미국 시민권 획득의 조건으로 “자유 백인(free white person)”이라는 규정이 들어갔으며, 그 이후 여러 번에 걸친 개정에도 불구하고 ‘백인(white)’이라는 문구는 1952년까지 유지되어왔기 때문이다. 즉, 법적으로 ‘백인’의 범주에 들어야 미국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시민권과 관련된 “자유백인” 규정은 백인의 범주를 정의하는 방향으로 해석이 되었다. 그 이유는 처음부터 “누가 백인이 아닌가?”가 관심이 아니라 “누가 백인에 포함되는가”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권 획득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개인의 백인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핵심적인 부분이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20세기 전반까지 미국의 시민권 자격 판단 여부에서 “백인성”의 범주는 피부색과 같은 외형적인 요소를 근거로 하여 유럽인들만을 ‘코케이시언’ 인종으로 인정하는 배타적 백인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1922년 일본인 타카오 오자와(Takao Ozawa)와 1923년 인도인 바젯 씨 신드(Bhagat Singh Thind)의 시민권 요청과 관련된 미국연방대법원 판례를 들 수 있다. 오자와와 신드는 시민권 취득을 위해서 자신들이 ‘백인’임을 주장해야 했으며, 법원은 그들이 ‘백인’이 될 수 없음을 시민권 거절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 과정 속에서 ‘백인성’의 범주가 비-유럽계 미국인이었던 아시아인에게 어떻게 배타적으로 적용되는지 알 수 있다.

1875년에 일본에서 출생하여 1894년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타카오 오자와(Takao Ozawa)는 하와이 법원에 시민권 신청을 하며 자신은 미국에 완전히 동화된 이민자임을 주장하였다. 미국에서

¹⁰ Ignatiev, Noel. (1995) *How the Irish Became White*. New York: Routledge.

¹¹ 노동운동과 연계한 유럽계 미국인들의 백인화 과정과 이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백인 노동자들이 누리게 되는 차별적 혜택에 대한 연구로는 David R. Roediger의 *The Wage of Whiteness: Race and the Making of the American Working Class*(1991)이 있다.

¹² 이 밖에도 이탈리아 이민자들인 경우 흑인과의 구분을 위하여 미 대륙을 처음 발견했다고 여겨지는 콜럼버스(Christopher Columbus)를 기념하는 축제를 크게 열었다. 이는 이탈리아인이 미국의 출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미국의 주류 백인과의 동질성을 강조하였다.

20년을 거주하였고 캘리포니아에서 고등교육을 마쳤으며, 그의 자녀들도 모두 미국 정규 학교에서 교육 받아 전문 분야로의 진출에 성공하였다. 그의 가족은 종교적으로 개신교 교회에 출석했고 집에서 영어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하와이 법원에서는 오자와가 일본에서 태어난 일본인(Japanese race)라는 이유로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¹³ 외모적으로도 거의 백인에 가까웠던 ([그림3]) 오자와는 연방법원까지 가서 자신이 ‘백인’임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연방 법원은 오자와가 외모적으로는 백인에 가까울 수 있으나 과학적으로 ‘몽골리안’으로 분류되는 동아시아인은 ‘코캐이시안’(a person of the Caucasian race)¹⁴이 아니며, 따라서 ‘백인’이 될 수 없음을 이유로 시민권 발급을 거절하였다. 오자와는 외향적으로 거의 백인에 가까웠음에도 ‘몽골리안’이라는 이유로 시민권을 받지 못하였고, 이 케이스는 ‘백인’의 자격은 인류의 인종 구분 상 ‘코캐이시안’으로 한정되며, 피부색(color)과는 무관하다는 논리를 적용한 판례가 되었다.

하지만, 1913년 미국으로 이주한 인도계 이민자였던 신드의 경우는 인류학적 의미의 ‘코캐이시안’의 범주에 드는 아리아인(Aryan)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권 요청이 거절당하였다. 오자와 케이스를 바탕으로 하면 학문적으로 명백한 ‘코캐이시안(a person of the Caucasian race)’이었던 신드는 그가 인종적으로 ‘백인’임을 주장하며 연방 법원에 다시 시민권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연방법원은 신드는 학문적으로는 코캐이시안에 해당될지 모르겠으나 “사회적 통념(common knowledge)”상 인도인을 백인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민권을 거절하였다. 따라서 당시 오자와의 신드와 같은 아시아 이민자인 경우, 백인을 의미하는 ‘코캐이시안’에 대한 인류학적 근거와 사회통념 사이에서 임의적 해석을 근거로 하여 미국인으로 인종하지 않는 배타적 백인성 범주가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Takao Ozawa (왼쪽) / Bhagat Singh Thind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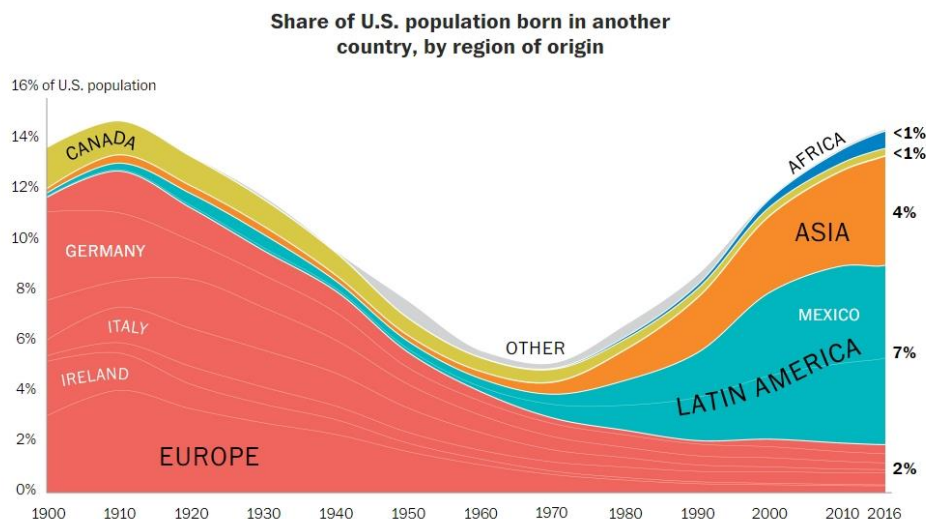
¹³ “Having been born in Japan and being of the Japanese race, he was not eligible to naturalization.” Takao Ozawa v. United States, 260 U.S. 178, 1922. 189-190.

¹⁴ Takao Ozawa v. United States, 260 U.S. 178, 1922. 198.

III. 1965년 이후: 아시아계/라티노와 백인성

민권운동은 이민정책 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민권운동의 중심이 되었던 평등한 사회에 대한 가치가 새로운 이민법에도 적용이 되어, 민족/인종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민을 허용했던 이민할당제가 폐지되고 사실상 모든 국가 사람들에게 이민을 개방하였다. 이로 인해 1965년 이민개혁은 미국의 인구 구성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전까지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였던 유럽계 이민자들의 비율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아시아와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지역으로부터의 이민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그림 4). 하지만,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민족적 차이를 근거로 누가 ‘미국인’으로 적합할 것인가를 나누었던 우생학적 인종주의 관점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즘에 대한 반감과 냉전 체제에서의 미국의 위치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더 이상 언급될 수 없었다. 하지만, 누가 ‘바람직한(good)’ 혹은 ‘바람직하지 않은(bad)’ 미국인에 속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진영에 상관없이 여전히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진정한 미국인과 연관된 ‘백인성’의 범주도 이 틀을 바탕으로 확장성을 보이기도 혹은 배타성을 보이기도 한다. 본 파트에서는 현재 가장 주목 받는 두 소수인종 그룹인 아시안과 히스패닉과 관련하여 ‘백인성’의 범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그림 4>



1. 모범소수 & 명예백인(honorary white)

1966년 1월 9일 사회학자 윌리엄 패터슨(William Petersen)은 『뉴욕 타임즈』(The New York Times)에 기고한 “성공 이야기, 일본계 미국인 스타일(Success Story, Japanese American Style)”이라는 글에서 역사적으로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근면, 인내, 가족유대 등의 가치를 유지하며 미국 사회에서 성공하고, 그들의 미국 태생 자녀들은 교육과 학구적 동양문화의 영향으로 전문직으로 진입하게 된 일본계 미국인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에게 ‘모범소수민족(model minority)’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여기서 ‘모범’이란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여러 복지 혜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흑인들에게 열악한 환경에도 개인의 노력만으로 충분히 성공한 ‘모범’을 보여준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 같은 해 12월 26일에 미국 뉴스와 세계 소식(U.S. News & World Report)에 실린 “어느 소수인종 그룹의 성공 이야기(Success Story of One Minority Group in

U.S.)” 기사는 중국계 미국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도 패터슨의 기사와 마찬가지로 국가로부터 막대한 복지 혜택을 받고도 성공하지 못하는 흑인을 비롯한 다른 소수인종들에게 자신의 노력으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모범’ 사례를 보여주는 의도가 다분히 있었다.

실제 타 민족에 비하여 높은 교육열과 그로 인한 미국의 평균 학력을 웃돌고 경제적으로도 도심의 빈곤지역을 벗어나 중산층 거주지로의 이주가 증가된 것이 통계로 제시되고, 언론에서 기사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이들을 성공으로 이끈, 근면, 인내, 가족의 가치 등이 미국 백인 중산층의 가치와 유사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성공이미지는 그들을 소수인종보다는 ‘백인’에 더 가깝게 만들었다. 특히, 중산층 아시아계 미국인인 경우에는 소수인종보다 보수적 백인과 더 동질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따라서 인종적으로는 다르지만 문화적, 가치적 측면에서의 ‘백인성’을 획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인종관계를 연구하는 사회학자 보닐라-실바(Bonilla-Silva)가 20세기 후반 미국의 인종관계는 기존의 흑-백 중심의 이분법적(bi-racial) 구조가 아닌 “백인,” “명예백인(honorary white)” “집단적 흑인(collective black)”을 축으로 하는 세 인종(tri-racial)으로 구성된 구분법을 제안하였다. 보닐라-실바는 인종 내에서도 민족, 계층에 따라서 상이한 인종적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3분법이 현실을 더 정확히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표1]을 보면 아시아계 미국인 중에서도 계층적으로 좀 더 상층에 있는 동아시아계 미국인들은 “명예백인”에 속해있는 반면, 경제적으로 좀 더 낮은 계층인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집단적 흑인”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백인 중산층의 가치와의 유사점을 지닌 것으로 여겨지는 모범소수민족으로서의 이미지나, 계층적으로나 동화 정도로 겉모습은 백인이 아니더라도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백인에 가까운 “명예백인”으로서의 아시아계 미국인이나 모두 20세기 전반 유럽계 미국인에게만 한정되었던 “백인성”이 비백인 그룹에게조차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보닐라-실바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이러한 중간자적인 위치는 오히려 백인 우월주의적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주류로의 진입에 성공한 일부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백인성”의 의미를 ‘코케이시안’이나 ‘유럽계 미국인’의 의미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종에 구애받지 않는 능력위주 사회(color-blind meritocracy)”(Koshy 154)의 ‘중상층 계급’이라는 계층적 의미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

<p>“Whites”</p> <p>Whites : 'traditional' whites / New Whites (Russians, Albanians, etc.) 'totally' assimilated white Latinos / Some multiracials Assimilated (urban) Native Americans / A Few Asian-origin people</p>
<p>“Honorary Whites”</p> <p>Light-skinned Latinos : Cubans / some Mexicans etc. Japanese Americans / Korean Americans / Asian Indians / Chinese Americans Middle Eastern Americans / Most multiracials / Filipino Americans</p>
<p>“Collective Black”</p> <p>Vietnamese Americans / Hmong Americans / Laotian Americans Blacks / New West Indian and African immigrants Reservation-bound Native Americans</p>

2. 인구 센서스와 배타적 백인성 : “Non-Hispanic White Alone”

미국에서 다양한 인종/민족 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인구조사를 위하여 만들어놓은 인종 구분은 1790년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백인’ 항목을 제외한 비백인 항목은 계속해서 수정되면서 재 분류되어 왔다. 현재 ‘히스패닉(Hispanic)’으로 분류되는 멕시코계 이민자들의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멕시코계 미국인은 19세기에는 인종적으로 ‘백인’으로 분류되었다. 특히, 1848년 멕시코 전쟁으로 인하여 미국으로 편입된 남서부 지역에 살던 멕시코인들은 그 지역에 많은 수가 거주하고 있었던 흑인이나 원주민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유럽문화에 해당하는 스페인계 문화권에 속하였기 때문에 인종적으로는 ‘백인’으로 분류되었고, 미국의 시민권도 주어졌다. 하지만 1890년대 이후 동부에서 서부로 이주하는 백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남서부 지역의 비-히스패닉 유럽계 미국인 수가 멕시코계 인구를 앞지르게 되고 20세기 전반 멕시코로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의 수가 증가하자, 이들을 주류 백인과 구별하기 시작하였다.

멕시코인들은 1924년 이민법으로 인하여 19세기 후반 미국 이민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남동부 유럽인들의 이민이 중단되면서 당시 이민 할당제의 적용도 받지 않고 아시아인처럼 배제되지도 않았던(Asiatic Barred Zone) 멕시코인들은 미국으로부터 비자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또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징집 등으로 농장 노동자의 수가 부족하게 되어 미국 고용주들의 요청에 따라서 연방정부는 1942년 멕시코 정부와 ‘비상농장일손협약’(Emergency Farm Labor Agreement)을 체결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19세기 연간 5천명이 넘지 않았던 멕시코 노동자의 수가 1950년대 후반 40만명 이상으로 늘어났다.¹⁵ 아이러니하게도 이 협약은 멕시코로부터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의 수도 함께 증가시켰는데, 당시 프로그램을 통한 노동자 수급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고자 고용주의 묵인 하에 많은 멕시코 노동자들이 정식적 계약 없이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당시 불법 노동자수와 합법 노동자 수의 비가 2:1이었다고 추정하고 있다.¹⁶

이러한 배경에서 1930년 인구 조사에서 처음으로 ‘멕시코인(Mexican)’이라는 항목이 신설되었고, 이로 인하여 멕시코인들은 ‘비백인’으로 분류되었다(그림 5). 언어, 종교적 이질감은 주류 백인과 거리가 있었을 수 있지만, 인종적으로 ‘코캐이션’이었던 중남미계 미국인들이 미국 내에서 인종적으로 ‘비백인’으로 분류되었던 것은 백인성의 범주가 매우 배타적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하여 멕시코 정부의 공식적인 항의로 인하여 1940년 조사에는 빠지게 되었지만 이는 ‘멕시코’인을 향한 배타적 ‘백인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멕시코 정부의 항의에서 보여지듯이 멕시코 이민자들도 아일랜드, 이탈리아계 미국인들처럼 흑백분리 체제하에서 흑인(colored)과의 거리를 두는 것을 백인화 전략으로 삼아 백인화를 이루려고 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중산층 라티노나 외향적으로 백인에 가까울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 심하였다. 즉, 이들은 흑백분리 분리정책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백인 우월적 인종 질서를 내재화하였던 것이다.¹⁷

하지만 멕시코인을 포함한 라티노에 대한 인종적 구분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증가한 것은 라티노 이민이 급증한 1965년 이후이다.¹⁸ 따라서 지금부터 1970년 이후 미국 인구 센서스에

¹⁵ ‘막노동’이란 의미를 가진 스페인어 ‘bracero’를 사용하여 이 협약은 “브라세로 프로그램”으로 불리게 되었다.

¹⁶ David Gutiérrez. “A Historical Overview of Latino Immigration and the Demographic Transformation of the United States” Web. <https://www.nps.gov/heritageinitiatives/latino/latinothemestudy/immigration.htm>

¹⁷ Foley, Neil. (1997). *The White Scourge: Mexicans, Blacks, and Poor Whites in Texas Cotton Cultur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¹⁸ 권은혜는 라티노 불법이주자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 촌츠키와 같은 학자가 그 이유로 그 전에는 멕시코인들이 이민자가 아닌 일시체류자(sojourner)로 여겨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이미 20세기 전반에도 이들에 대한 이민제한에 대한 논의는 전개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였

서 라티노 이민자들의 계수를 위한 인종 항목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도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이들을 인종적 ‘백인’으로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의도가 명확히 보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이들에게 적용되는 지배적 담론은 이들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의심과 이와 연결된 여러 편견이 그들을 진정한 미국인, 곧 ‘백인’으로 포함시킬 수 없는 배타적 백인성의 근거가 되고 있다.

<그림 5> 1930 Census Questionnaire

1930 Census Questionnaire form showing handwritten entries for a family. The form includes sections for Name, Relation, Home Data, Personal Description, Education, and Race. The race section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showing 'White' selected for the father and mother.

<그림 6> 1940 Census Questionnaire

1940 Census Questionnaire form showing handwritten entries for a family. The form includes sections for Name, Relation, Personal Description, Education, Place of Birth, and Race. The race section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showing 'White' selected for the father and mother.

우리가 흔히 인구 통계 자료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소수인종’의 개념으로 접하게 되는 ‘히스패닉(Hispanic)’이라는 그룹은 인구 조사에서 1930년을 제외하고는 한번도 ‘인종(Race)’ 항목에 들어가지 않았다.[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1970년에서 1990년까지 설문대상자는 인종(race)을 선택하는 문항에 먼저 답한 다음에(4번), ‘히스패닉’에 해당하는지 묻는 구체적인 질문이 나온다(7번). 하지만, 2000년 이후 센서스부터는 여기에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 우선 2000년부터 인종을 묻는 질문과 히스패닉 여부를 묻는 질문의 순서를 바꾸었다(그림7). 이는 라티노계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백인’을 선택하고 히스패닉 여부에 대한 응답이 부정확하자 백인 그룹 중에서 ‘비-히스패닉(non-Hispanic)’ 백인을 좀 더 정확하게 계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또한 2010년에는 인종간 혼인의 증가로 인한 혼혈 인구 파악을 위해 ‘그 밖의 인종(some other race)’ 항목을 추가하여 혼혈이 ‘백인’을 표시하는 비율을 줄였다. 이는 혼혈인구에 대한 파악 이외에도 라티노계가 ‘백인’을 표시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었는데, 실제로 이후부터 라티노계 응답자가 백인 대신에 ‘그 밖의 인종’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이 외에도 2000년 인구 센서스부터 개인의 인종 선택에 대한 복수 표시가 허용되는 것도

다. 즉, 1920년대 이민제한법이 논의될 당시에도 이미 멕시코인들의 시무지, 더러움, 게으름, 범죄성향” 등을 언급하며 이들의 이민제한을 논의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권은혜. (2016). 「근대 미국의 국법 이민」 민형성과 합법화의 대안 사이에서: 1920년대 이후 멕시코 이민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Homo Migrants* 14, 82-102. p.86. 권은혜는 이 문제에 대하여 Mae M. Ngai. (2004). *Impossible Subjects: Illegal Aliens and the Making of Modern America*. Princeton University Press.를 참고로 하고 있다.

하나의 큰 변화이다. 이에 2010년 설문문의 변화와 함께 백인과 라티노 계열의 혼혈인 경우 히스패닉이라고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도 인종적으로 ‘백인’과 ‘그 밖의 인종’이라고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백인’이라고 선택한 그룹 중에서 ‘히스패닉’과의 혼혈인 경우는 ‘비히스패닉 백인’으로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다. 사실상 인종의 복수 선택의 결과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인종별 통계적 수치는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지적되고 있는 점이다.¹⁹

마지막으로 민족 출신을 묻는 질문을 살펴보면, 2000년 조사에서 Spanish, Hispanic, Latino의 순서가 “Spanish/Hispanic/Latino?”와 같았던 것에 비해 2010년에 그 순서가 “Hispanic, Latino or Spanish origin”으로 바뀌었다 [그림 8].²⁰ 이는 ‘스페니쉬’가 제일 앞에 있어서 유럽의 스페인인이 표시를 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2010년에 그 순서도 바꾸고 ‘Spanish’ 다음에 ‘origin’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유럽계’ 출신으로 백인을 제한하는 이유가 문화적 동질감이 아니라 매우 배타적 백인성이 적용되는 미국식 ‘코캐시안’임을 알 수 있는 변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7> 1970 Census Questionnaire

The image shows a portion of the 1970 US Census questionnaire. It includes sections for:

- 3. SEX:** Male (circle), Female (circle). Instruction: "Fill one circle."
- 4. COLOR OR RACE:** Options include White, Negro or Black, Indian (Amer.), Japanese, Chinese, Filipino, Hawaiian, Korean, Other-Print race. Instruction: "Fill one circle. If 'Indian (American),' also give tribe. If 'Other,' also give race." There is a box for "Print tribe" and "Print race".
- 5. Month and year of birth and age at last birthday:** Fields for Month, Year, and Age.
- 13a. Where was this person born?** Options: This State, OR (Name of State or foreign country; or Puerto Rico, Guam, etc.).
- b. Is this person's origin or descent—** (Fill one circle). Options: Mexican, Puerto Rican, Cuban, Central or South American, Other Spanish, No, none of these.
- 14. What country was his father born in?** Options: United States, OR (Name of foreign country; or Puerto Rico, Guam, etc.).
- 15. What country was his mother born in?**

Annotations on the left side of the form indicate percentages for certain categories:

- 15 and 5 percent for Section 4 (Color or Race).
- 5 percent for Section 13a (Where was this person born?).
- 15 percent for Section 14 (What country was his father born in?).

<그림 8> 1980 Census Questionnaire

The image shows a portion of the 1980 US Census questionnaire. It includes sections for:

- 3. Sex:** Male (circle), Female (circle). Instruction: "Fill one circle."
- 4. Is this person —** (Fill one circle). Options include White, Black or Negro, Japanese, Chinese, Filipino, Vietnamese, Asian Indian, Hawaiian, Guamanian, Samoan, Eskimo, Aleut, Indian (Amer.), Other—Specify. There is a box for "Print tribe" and "Print race".
- 5. Age, and month and year of birth:** Fields for a. Age at last birthday, c. Year of birth, and a. Age at last birthday.
- 7. Is this person of Spanish/Hispanic origin or descent?** (Fill one circle). Options: No (not Spanish/Hispanic), Yes, Mexican, Mexican-Amer., Chicano, Yes, Puerto Rican, Yes, Cuban, Yes, other Spanish/Hispanic.
- 6. Marital status:** Options include Widowed, Never married, Divorced.

Annotations on the right side of the form indicate percentages for certain categories:

- 15 and 5 percent for Section 4 (Is this person —).
- 5 percent for Section 7 (Is this person of Spanish/Hispanic origin or descent?).
- 15 percent for Section 6 (Marital status).

¹⁹ 진보학자 매튜 일레스야스(Matthew Yglesias)는 복수정답자의 답변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백인이 소수인종이 된다는 전망이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미디어에서 재생산되는 담론들은 매우 우백인'에 대한 통계의 배타적 해석을 반영한 것으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본다. Matthew Yglesias. (2018) "Study: overhyped media narratives about America's fading white majority fuel anxiety" Vox. Web. <https://www.vox.com/policy-and-politics/2018/5/2/17305402/majority-minority-demographic-forecast>

²⁰ 구체적 질문은 조사 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1970년에는 "Is this person's origin or descent..."이었으며 1980, 1990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Is this person Spanish/Hispanic origin?"와 같이 질문하고 있으며, 2000년은 "Is Person 1 Spanish/Hispanic/Latino?"로 Latino를 첨가하였고, 2010년에는 순서를 바꾸어 "Is Person 1 Hispanic, Latino or Spanish origin?"로 수정하였다.

<그림 9> 1990 Census Questionnaire

4. Race
 Fill ONE circle for the race that the person considers himself/herself to be.
 If Indian (Amer.), print the name of the enrolled or principal tribe.
 If Other Asian or Pacific Islander (API), print one group, for example: Filipino, Fijian, Laotian, Thai, Tongan, Palisani, Cambodian, and so on.
 If Other race, print race.

5. Age and year of birth
 a. Print each person's age at last birthday.
 b. Year of birth.

7. Is this person of Spanish/Hispanic origin?
 Fill ONE circle for each person.
 If Yes, other Spanish/Hispanic, print one group.

FOR CENSUS USE

<그림 10> 1990 Census Questionnaire (왼쪽) / 2000 Census Questionnaire (오른쪽)

1990 Census Questionnaire (Left): Similar to Figure 9, but with a different layout for race and ethnicity questions.

2000 Census Questionnaire (Right): Includes a note: "NOTE: Please answer BOTH Questions 7 and 8." and "7. Is Person 1 Spanish/Hispanic/Latino? Mark [X] the 'No' box if not Spanish/Hispanic/Latino." and "8. What is Person 1's race? Mark [X] one or more races to indicate what this person considers himself/herself to be."

<그림 11> 2010 Census Questionnaire (왼쪽) / 2010 Census Questionnaire (오른쪽)

2010 Census Questionnaire (Left): Includes a note: "NOTE: Please answer BOTH Questions 7 and 8." and "7. Is Person 1 Spanish/Hispanic/Latino? Mark [X] the 'No' box if not Spanish/Hispanic/Latino." and "8. What is Person 1's race? Mark [X] one or more races to indicate what this person considers himself/herself to be."

2010 Census Questionnaire (Right): Includes a note: "NOTE: Please answer BOTH Question 8 about Hispanic origin and Question 9 about race. For this census, Hispanic origins are not races." and "8. Is Person 1 of Hispanic, Latino, or Spanish origin?" and "9. What is Person 1's race? Mark [X] one or more races to indicate what this person considers himself/herself to be."

결국 현재 우리가 소수인종이 될 것이라 전망하는 ‘백인’이란 이러한 배타적 백인성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계수된 ‘Non-Hispanic White Alone’에 해당되는데 이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한다면 코캐이시언 중에서 1)중남미로부터 온 이민자나 그 후손이 아니며, 2)미국 문화로의 동화여부와는 상관 없이 유전자적, 사회통념적 의미로 ‘코캐시안’이 아닌 타인종(Black, Asian, American Indian 등)과의 혼혈이 되지 않은 확장된 의미의 3)‘유럽계 미국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구 센서스에서 발표한 아래의 표를 보면(그림 9) 이를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표에 의하면 전체 인구가 ‘Non-Hispanic White Alone’과 그 외의 모든 그룹을 ‘minority’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는 인구 센서스에서 적용되는 ‘백인’의 범주는 매우 배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1>

Table 11.
Non-Hispanic White Alone Population and the Minority Population for the United States, Regions, States, and for Puerto Rico: 2000 and 2010

(For information on confidentiality protection, nonsampling error, and definitions, see www.census.gov/prod/cen2010/doc/pl94-171.pdf)

Area	2000				2010				Percentage change, 2000 to 2010	
	Total	Non-Hispanic White alone	Minority ¹	Percentage minority ¹	Total	Non-Hispanic White alone	Minority ¹	Percentage minority ¹	Non-Hispanic White alone	Minority ¹
United States	281,421,906	194,552,774	86,869,132	30.9	308,745,538	196,817,552	111,927,986	36.3	1.2	28.8
REGION										
Northeast	53,594,378	39,327,262	14,267,116	26.6	55,317,240	38,008,094	17,309,146	31.3	-3.4	21.3
Midwest	64,392,776	52,386,131	12,006,645	18.6	66,927,001	52,096,633	14,830,368	22.2	-0.6	23.5
South	100,236,820	65,927,794	34,309,026	34.2	114,555,744	68,706,462	45,849,282	40.0	4.2	33.6
West	63,197,932	36,911,587	26,286,345	41.6	71,945,553	38,006,363	33,939,190	47.2	3.0	29.1
STATE										

V. 결론

다시 2010년 인구 조사에서 규정한 ‘백인’의 정의로 돌아가면, 앵글로 민족에게만 국한되었던 ‘백인성’이 남동부 유럽을 포함한 모든 유럽계 백인으로 그 의미가 확장된 것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비유럽인들을 배제하며 형성된 ‘코캐이션’이라는 본질주의적인 인종 범주도 동시에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백인성의 범주화 과정은 20세기 후반 가장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는 아시아인과 라티노들에 대한 태도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다. 아시아계 미국인의 경우 가족의 가치, 기독교, 공화주의와 같은 색맹(color-blind)적 가치를 공유한다는 동질감으로 ‘모범소수 민족’이나 ‘명예 백인’등의 명칭으로 ‘백인’의 범주에 끼주기도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모범 ‘소수민족(minority)’이나 ‘명예’만 부여된 백인일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중간자적 위치는 오히려 유럽계 미국인 중심의 백인 우월주의(민족주의)를 공고히 할 뿐 백인성 자체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문화적으로 미국인으로서는 동화가 되었음에도, 인류학적으로 코캐이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으로, 혹은 통념상 ‘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정한 미국인’은 결국 되지 못한 채, 자신이 얼마나 ‘백인’인지를 증명해야 했던 100년 전 오자와나 신드의 경우를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다.

인종 구분에서 “히스패닉(Hispanic)”으로 분류되는 라티노 계열인 경우 이들을 ‘백인’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는 매우 두드러진다.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지역은 오래전부터 스페인의 지배를 받아 유럽 문화권에 있으며 특히 종교적으로도 기독교에 해당하는 카톨릭 문화권이며, 인종적으로도 ‘코캐이션’에 속한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구조사 과정에서 이들을 “백인”으로 분류시키지 않으려는 노력은 매우 집요하기까지 하다. 그리고 이들에게 적용되는 ‘불법성’에 대한 의심은 그들을 ‘미국인’에서 배제하는 근거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있는 담론 중 하나이다. 이들이 “백인” 항목에 속할 수 없는 이유는 이들은 합법적인 이민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따로’ 분리하여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을 끊임없이 분류해내는 이유이다. 트럼프의 등장은 사실상 ‘은밀하게’ 이루어져 왔던 이러한 배제전략을 명시적으로 드러나게 한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백인성’의 범주는 배타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에 어느 정도 희망을 걸어볼 수는 있다. 결국 코캐이션이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백인’이라는 동일한 인종구분 속으로 흡수된 다양한 유럽계 이민자들도 ‘앵글로-개신교’ 중심의 ‘백인성’ 자체의 확장에도 기여를 하였다. 개신교 중심의 주류 백인성이 카톨릭 아이리쉬, 이탈리아계 이민자들에 의하여 ‘기독교(Christianity)’로 확

장 된 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백인성’의 확장이나 혹은 변형을 통하여 주류로 편입 되는 것이, 비유럽계 이민자들 출신 미국인들에게도 과연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 결국 ‘컬러리즘 (colorism)’에 기반을 둔 미국의 인종주의는 무너지지 않고 결국 백인의 나라로서의 미국은 지속될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미국의 미래에 던지는 질문이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

참고문헌

- 권은혜. 2016. “근대 미국의 “불법 이민” 형성과 합법화의 대안 사이에서: 1920년대 이후 멕시코 이민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Homo Migrants> 제14: 82-102.
- 민정희. 2008. 《미국 이민의 역사: 이론과 실제. 미국 이민자들의 적응과 동화》 서울: 개 신.
- 민정훈. 2018. 《미국 이민 정책 변화에 대한 연구: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연구시리즈 2018-18.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et. al. 1902. *Some Reasons for Chinese Exclusion, Meat vs Rice, American Manhood against Asiatic Coolieism: Which Shall Survive*, San Francisco: American Exclusion League.
- Bonilla-Silva, Eduardo. 2004. “From bi-racial to tri-racial: Towards a new system of racial stratification in the USA.” *Ethnic and Racial Studies* 27, 6: 931-50.
- Ewing, Walter A., Martinez, Daniel E., & Rumbaut, Ruben G. 2015. *The Criminalization of Immigration in the United States*. Special Report. American Immigration Council.
- Fitzgerald, Kathleen J. 2017. *Recognizing Race and Ethnicity : Power, Privilege, and Inequality*. New York: Routledge. 2nd Edition.
- Foley, Neil. 1997. *The White Scourge: Mexicans, Blacks, and Poor Whites in Texas Cotton Cultur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Franklin, Benjamin. 1751. “Observations Concerning the Increase of Mankind, Peopling of Countries, etc” Mott & Jorgenson. 216-23.
- Frey, William H. 2014. *Diversity Explosion : How New Racial Demographics are Remaking America*.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Humes, Karen R., Nicholas A. Jones, & Roberto R. Ramirez. 2011. *Overviews of Race and Hispanic Origin: 2010*. United States Census Bureau. 3.
- Huntington, Samuel. 2004. *Who Are We? The Challenges to America’s National Identity*. Simon & Schuster.
- _____. 2004. “The Hispanic Challenge” *Foreign Policy*. 30-45.
- Ignatiev, Noel. 1995 *How the Irish Became White*. New York: Routledge.
- Jacobson, Matthew Frye. 1998. *Whiteness of a Different Color: European Immigrants and the Alchemy of Ra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Koshy, Susan. 2001. “Morphing Race into Ethnicity: Asian Americans and Critical Transformations of Whiteness.” *Boundary 2* 28,1: 53-94.
- López, Ian F. Haney. 1996. *White By Law: The Legal Construction of Rac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Mott, Frank Luther, & Chester E. Jorgenson. eds. 1936. *Benjamin Franklin Representative Selections*. New York: American Book Company.
- Mutz, Diana C. 2018. “Status threat, not economic hardship, explains the 2016 presidential vote.”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5, 19: 1-10.
- Petersen, William. 1966. “Success Story, Japanese-American Style.” *The New York Times*. Web.
- Rodriguez, Victor M. 2005. “The Racialization of Mexican Americans and Puerto Ricans: 190-s-1930s.” *CENTRO Journal* 17, 1: 71-105.
- Roediger, David. R. 1991. *The Wages of Whiteness: Race and the Making of the American Working Class*. New York: Verso.

- Strmic-Pawl, H. V., Jackson, B. A., & Garner, S. 2018. "Race Counts: Racial and Ethnic Data on the U.S. Census and the Implications for Tracking Inequality." *Sociology of Race and Ethnicity* 4, 1:1-13.
- "Success Story of on Minority Group in U.S." *U.S. News & World Report*. 26. Dec. 1966. Web.
- Ygiesias, Matthew. 2018. "Study: overhyped media narratives about America's fading white majority fuel anxiety" *Vox*. Web.

■ **저자:** 이수영_한양사이버대학교 영어학과 교수.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미국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미국 소수 인종, 소수 민족문화, 미국 이민사, 아시아계 미국문학/문화, 소수민족 정체성 및 젠더 정치 등이다. 최근 연구로는 “Mapping Korean American Literary Studies in Korea 1994-2016”(2018), “Masculinity First, Asian After: Justin Lin’s Strategies to ‘Mainstream’ a New Generation of Asian American Men.”(2018) 등이 있다.

■ **담당 및 편집:** 이영현 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7) ylee@eai.or.kr

-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발행일 2019년 12월 5일

[미국미래2030] 미국 패권의 미래: 트럼프 이후 미국은 어디로? (2)

“미국의 인구 및 문화적 변동과 미국의 미래” 979-11-90315-28-9 95340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0454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Tel. 82 2 2277 1683 Fax 82 2 2277 1684

Email eai@eai.or.kr Website www.eai.or.kr